



개혁신학적 관점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 바라보는 아시아 교회

Asian Church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Kingdom of God of the Reformed Theology



안인섭 In-Sub Ahn

총신대학교 Chongshin University

ahnkampen@hanmail.net

<초록>

아시아는 서양에 비해 늦게 근대화 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서양에 뒤쳐져 있다고 인식되지만, 지구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세계인구의 60%가 거주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은 꾸준히 성장하여 세계적인 국가가 되고 있다. 기독교적으로 보아도 세계에서 여전히 왕성하게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도 아시아다. 그러므로 비록 아직도 아시아는 여러 면에서 더 발전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아시아 교회를 위한 중장기 정책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선교하는 것은 기독교의 미래를 위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아시아신학연맹(ATA)을 통해서 아시아 교회와 신학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아시아 교회의 건강한 부흥과 정책 수립을 위해서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 신학을 고찰했다. 개혁신학을 종합한 칼빈의 하나님 나라 신학은 하나님의 이중

의 통치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죄용서와 구원이라는 내적인 측면에서 시작해서 외적으로 인간 사회와 창조 세계라는 “동심원적” 구조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 이어서 본 발제는 아시아 교회 정책 수립을 위한 사례 연구로서, 개혁신학의 하나님 나라 신학에 근거해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총신대학교의 국제화에 대해서 상세하게 고찰하였다.

이상의 연구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1) 아시아 교회는 성경적인 개혁신학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하며, (2) 아시아 교회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개혁주의적인 역동적 대처가 필요하고, (3) 아시아 교회와 개혁 신학의 긴밀한 협력과 동역이 절실하다는 것, 그리고 (4) 아시아 교회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생산해 내며 연대하여 플랫폼을 형성해 나갈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향후 아시아교회정책연구소(ACPI)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

I. 들어가는 글

지난 2016년 7월 총신대 양지캠퍼스에서 아시아신학연맹(Asia Theological Association, 약자로 ATA) 총회 및 국제컨퍼런스가 개최된 적이 있었다. 당시 ATA 사무총장을 맡고 있었던 조셉 샤오 박사의 개회 연설은 아시아 교회에 대한 의미있는 통찰을 제공해 주고 있다.

현재 아시아의 교회들은 글로벌 시대 속에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시아인지, 아시아에 거주한다는 것만으로 아시아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나라별 종교적 색채가 다르고,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다른 점, 성장이 더딘 이유 등 고민할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총회를 통해서 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지난 수차례의 ATA 총회를 통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아시아의 기독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헌신할 때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¹

1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71115>. 2023.8.19. 접속.

아시아는 한마디로 다양성 속에서 이해된다. 이와 동시에 아시아는 역사적으로 서양에 비해 늦게 근대화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서양에 뒤쳐져 있다고 인식된다. 아시아의 기독교 또한 서양에서 전래되었기 때문에 뒤늦게 19세기에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시아는 지구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세계인구의 60%가 거주하고 있는 광대한 지역이다. 아시아의 몇몇 주요 국가들은 꾸준히 성장하여 이미 여러 측면에서 세계적인 국가가 되었다. 하림그룹의 김홍국 회장은 동아시아는 인구가 17억이나 되고 (유럽은 5억에 불과하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개발도상국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 성장의 속도와 역동성을 고려한다면 통일 한국이 국제적인 식량 공급의 허브가 되어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한국의 롤모델(role model)로서 유럽은 물론 세계 최대의 농수산물 및 식품의 센터 역할을 하는 네덜란드를 꼽고 있다.² 경제 및 산업적으로 볼 때 아시아는 한국과 협력해서 함께 세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기독교적으로 보아도 세계에서 여전히 왕성하게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도 아시아다. 비록 아직도 아시아는 여러 면에서 더 발전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향후 인간 문명과 기독교의 미래가 아시아에 있다는 것은 더이상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전제는 개혁신학은 현대의 목회현장과 사회 모두를 위한 대안이 되며,³ 개혁주의적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⁴ 특별히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아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그 중요성이 더욱 심대하게 드러나고 있다.⁵

본 발제는 이상과 같은 아시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직시하면서,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추구하고, 다문화 가운데 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진행될 것이다. 즉 기독교의 “보편성(Universality)”과 아시아의 “특수성(Particularity)”을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2 김홍국, “북한 식량문제와 해결방안,” 기초강연 「제1회 복음-평화-통일 컨퍼런스: 통일로 향하는 교회의 길」 기독교통일학회, 한반도평화연구원, 온누리교회 공동주최 (노보텔엠베서더 서울 강남 보르도홀, 2019.11.22.), 14.

3 안인섭, “개혁주의의 현대목회적 적용,” 「총회설립 100주년 전국 목사장로대회 자료집」 (수영로교회, 2012.5.14).

4 안인섭, “개혁주의 예배의 전통과 회복,” 「개혁주의 예배회복을 위한 권역별 세미나: 제51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지역준비기도회 자료집」 (반야월교회, 2014.4.1./ 한성교회, 2014.4.3./ 광주미문교회, 2014.4.4.).

5 안인섭, “코로나 이후시대 목회를 위한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 신학,” 「제59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자료집」 (홍천 소노갑 비발디파트, 2012.5.10).

II.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 교회

1. 아시아의 지리적 범위

아시아의 면적은 44,579,000 km²로서 지구에서 가장 넓고 인구가 많은 대륙이다. 아시아에는 총 48개의 독립 국가가 존재하고 있으며 세계 인구 전체의 60% 정도가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다.⁶

일반적으로 아시아를 동쪽에서부터 살펴보면 동아시아(Eastern Asia), 동남아시아(South Eastern Asia), 중앙아시아(Central Asia), 남아시아(Southern Asia), 그리고 서아시아(Western Asia)로 분류된다.

동아시아는 대한민국과 몽골,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일본, 그리고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속해있다. 동남아시아는 주로 인도차이나반도와 말레이 반도 중심의 국가들이 속해 있는데,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의 인도차이나반도에 있는 국가들과,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말레이제도 주변의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다른 곳에 비해서 비교적 지역에 대한 정의가 통일되어 있지는 않는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몽골, 중화인민공화국 서부의 티베트 자치구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도 중앙아시아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확정되어 있지는 않다.

남아시아는 주로 인도와 주변의 국가들이 속해있는데, 인도, 네팔, 부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인도양에 있는 스리랑카와 몰디브가 속한다. 서아시아는 서남아시아라고도 불린다. 때로 중동이라고도 불리나, 중동(中東)이라는 말은 북아프리카의 국가들까지도 포함한다. 서아시아는 근동 지역의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한 축을 이루고 있고, 이란이 있으며, 아라비아반도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예멘 등이 속하고, 그 외에 이집트의 시나이반도 까지 언급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아시아는 그 범위가 광활하고 복잡하며 따라서 종교적으로도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2. 아시아 교회와 신학

아시아의 교회와 관련해서는 1968년 싱가포르 범아시아 복음주의 회의에서 촉발되어 1970

6 위키백과, 아시아 항목. 2023.8.19. 접속.

년 창립된 아시아신학연맹(ATA)을 통해서 조망하는 것이 비교적 공신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TA는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을 기초로 아시아의 신학교들을 인증하는 것을 중심 사역으로 하면서 복음주의 신학 운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⁷ 현재 ATA는 아시아 32개국에서 380개의 신학교와 신학 기관이 참여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이루고 있는데,⁸ 아시아, 남태평양 및 서아시아(중동)는 물론 유럽과 미국 전역의 흩어진 아시아 기독교 공동체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이와는 별도로 동남아시아의 신학교를 인증하는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ATESEA (Association for Theological Education in South East Asia)도 있기는 하다. ATESEA는 1957년에 필리핀에서 설립되어 16개국 102개 회원이 속해 있는데,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규모도 ATA에 비해 적으며, 신학적으로도 “비판적 아시아 원칙(Critical Asian Principle)”에 근거해서 신학적 갱신과 상황화를 추구하는 다양성이 있다는 면에서,⁹ 한국 교회의 입장에서는 ATA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이다.

ATA는 “복음주의 신앙과 학문에 헌신된” 신학 기관들의 단체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킴에 있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으로 그 사명을 선포하고 있다.¹⁰

ATA의 최근의 관심은 지난 2022년 9월 26-30일에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되었던 ATA 정기 총회의 주제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신학 교육의 디지털 전환: 영향, 기회 및 도전 (The Digital Turn in Theological Education: Impact, Opportunities and Challenges)이었다.”¹¹ 코로나19 시대를 겪은 직후 아시아 신학교육의 고민과 방향성을 들여다 볼 수 있다. 기존 발제들은 각각 다음과 같다.

“서론: 디지털 전환의 개요(Introduction: Overview of the Digital Turn)”

“디지털 교육과 영성 형성(Digital Education and Holistic Formation)”

“디지털 시대의 교회의 신학(Theology of the Church in the Digital Age)”

“디지털 시대의 증인과 제자도의 전망(The Landscape of Witness and Discipleship in the Digital

7 Joseph Shao, “Global Networking for Theological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sia Theological Association,” 『총신대 학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Global Network for the Theological Education』 (2015년 5월 11-13), 104-121.

8 ATA 홈페이지, <https://www.ataasia.com/membership/> 2023.8.19. 접속.

9 ATESEA 홈페이지, <https://atasea.net/> 2023.9.3. 접속.

10 <https://www.ataasia.com/about-us/> 2023.8.19. 접속.

11 <https://www.ataasia.com/2022ataga/> 2023.9.3. 접속.

Age)”

“디지털 신학교육에 있어서 공동체와 상황, 네트워크와 협력(Community and Context, Networking and Collaboration in Digital Theological Education)”

“디지털 시대에 대한 비판적 시각: 혼란인가 갱신인가 발전인가?(A Critical Look at the Digital Age: upset, updates, or upgrade?)”

“디지털 교육의 사례 연구를 통해 배우기(Learning from Digital Education Case Studies)”

이상에서 볼 때 현재 아시아 교회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신학교육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아시아 교회 정책의 신학적 기초: 하나님 나라 신학

이 장에서는 아시아 교회의 건강한 부흥과 정책 수립을 위한 보편적인 신학적 기준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고찰할 것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칼빈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그 중심을 이루게 될 것이다.

1. 하나님 나라 신학의 중요성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가¹² 마지막 메시지는¹³ “하나님의 나라”였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다.¹⁴ 주님이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기도 중에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셨다.¹⁵ 역사적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 결국 우리의 신앙과 교회 사역과 선교의 중심

¹² 마 4:12-17; 막 1:14-15; 눅 4:14-15.

¹³ 행 1:3.

¹⁴ 마 19:13-15; 막 10:13; 눅 18:15-17.

¹⁵ 마 6:9-13.

이자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워낙 중요하면서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예 마태복음 13장에서 별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있게 설명해 주셨다. 특히 마태복음 13:24~30, 36~43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주인의 밭에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지만 결국 추수 때가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다. 예수님은 추가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에서 좋은 씨와 가라지가 주인의 밭, 즉 세상(코스모스, κόσμος)에서 종말까지 함께 자라고 있다고 가르치셨다.¹⁶

개혁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은 이 성경구절에 근거해서 대작 “신국론”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부터 종말까지 지속되는 역사를 통해서 전개된다고 장엄하게 밝혔다.¹⁷ 두 개의 도시 (duae civitates) 즉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은 “예루살렘”과 “바벨론”처럼 서로 대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¹⁸ 이 세상(saeculum)에서는 서로 섞여 존재하며¹⁹ 창조부터 종말까지 진행되고 있다.²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 신학은 아시아 교회에 거대한 구조를 갖게 한다. 아시아 교회는 전체 아시아 지역이라는 밭, 즉 세상(코스모스, κόσμος) 속에서, 계속 증가되는 도전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결국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성취를 이루게 될 것이다.

2.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 신학의 동심원적 구조²¹

1)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죄용서와 구원

직접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해석은 먼저 영적인 차원에서 시작하고 있다. 영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동심원적 구조 가운데 중심으로 향하는 작은 원의 영역에 대항하는 부분이다.

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으로써 그들을 믿음 가운데로 초청하셨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16 마태 13:24~30, 36~43. 어거스틴의 대작 『신국론』은 바로 이 성경 구절을 토대로 저술된 것이다.

17 G. O'Daly, *Augustine's City of God: A Reader's Guide* (Oxford: Clarendon, 1999), 53-66 그리고 265-272.

18 J. van Oort, *Jerusalem and Babylon: A Study into Augustine's City of God and the Sources of his Doctrine of the Two Cities* (Leiden: E.J. Brill, 1991), 361.

19 Augustine, *De Civitate Dei*, 1.35.; M. Ruokanen, *Theology of Social Life in Augustine's De civitate Dei*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3), 77.

20 Augustine, *De Civitate Dei*, 15-18권.

21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보시오. 안인섭, “칼빈의 하나님 나라 신학 연구,” 『한국개혁신학』 68 (2020): 132-165.; 안인섭, 『종교개혁 역사연구』 (용인: 킹덤북스, 2022), 146-179.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란 죄 용서와 구원과 생명과 그 밖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모든 것을 의미하였다.²²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요소는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죄용서와 구원, 그리고 생명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정적인 국가나 세상의 제도에서 찾을 수 없다.²³ 또한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교회와 직결된다.²⁴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먼저 그 영적인 특징이 두드러지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되는 참된 교회이기도 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어떤 제도적 기관이나 국가를 의미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의 섭리로 온 인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²⁵

2) 하나님 나라와 인간 사회

칼빈은 인간에게는 영적인 통치와 정치적인(일시적인) 통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²⁶ 영적인 통치는 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관계되며, 정치적 통치는 양심이 시민 사회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관계된다. 정치적인 통치란 먹고 입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관련된 통치다. 이 둘을 영적인 나라와 정치적인 나라라고 부른다.²⁷

칼빈은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외적인 통치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국가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사회적 삶을 살아야 한

22 Iohannes Calvinus,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n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s. G. Baum, E. Cunitz, E. Reuss, Vol. 2 (Brunswick: C. A. Schwetschke, 1868), col. 2, cols. 622-623 (*Institutes*, 3.19.15.). "Vulgo appellari solent iurisdictio spiritualis et temporalis, non improprie nominibus." (이하 밑줄은 필자의 강조임). 이하 CO로 표기한다. CO 2, cols. 449-450 (*Institutes*, 3.3.19.). "Regnum Dei annuntiando ad fidem vocabat: siquidem per regnum Dei quod docebat in propinquo esse, remissionem peccatorum, salutem, vitam, et quidquid omnino in Christo assequimur, significabat."

23 CO 2, cols. 1092-1093 (*Institutes*, 4.20.1.). "육신과 영혼을 구별할 줄 알고 덧없는 현세와 영원한 내세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과 세속적인 지배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안다. 이 세상의 초보적인 제도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찾으려 거기에 한정하려는 것은 유대적인 허망한 생각이다."

24 CO 2, cols. 771-772 (*Institutes*, 4.2.5.). "요약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말씀만으로 지배하시므로, 그리스도의 흠, 즉, 그분의 지극히 거룩한 말씀과는 별개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존재하는 듯이 상상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어느 누가 분명히 깨닫지 못할 것인가?"

25 CO 2, cols. 153-154 (*Institutes*, 1.17.1.).

26 CO 2, cols. 622-623 (*Institutes*, 3.19.15.). "Vulgo appellari solent iurisdictio spiritualis et temporalis, non improprie nominibus." (이하 밑줄은 필자의 강조임).

27 CO 2, col. 623 (*Institutes*, 3.19.15.). "Quibus significatur, priorem illam regiminis speciem ad animae vitam pertinere, hanc autem in his quae praesentis vitae sunt versari: non quidem in pascendo tantum aut vestiendo, sed in praescribendis legibus quibus homo inter homines vitam sancte, honeste modesteque exigat. Nam illa in animo interiori sedem habet; haec autem externos mores duntaxat componit. Alterum vocare nobis liceat regnum spirituale, alteram regnum politicum."

다는 것이다. 이것은 칼빈의 하나님 나라의 동심원적 구조 가운데 외부로 향하는 원심력의 방향이다.

영적인 통치와 정치적 통치는 구별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 통치를 그리스도인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은 오류다. 칼빈은 이중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칼빈은 이 두 통치가 서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어거스틴과 칼빈 모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고 있다.²⁸ 이 세상은 사회적 세상이다.²⁹ 칼빈은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했다.³⁰ 어거스틴이 창조 세계와 정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강조하는 것처럼, 교회와 국가는 하나로 혼합되지는 않지만 불가결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교회가 그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세속 권력이 단순한 자연법에 머물지 않고 세상의 정치 영역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세워가야 한다고 강조한다.³¹ 두 왕국 신학은 여러 영역으로 확대되어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데, 기독교 교육과 사회적 책임의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³²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시아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시아의 사회와 국가에서 담당해야 할 공적인 사명, 즉 공공성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시아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부흥해야 하는데, 동시에 아시아 교회는 아시아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아시아 성도들을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진 자들로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3) 하나님의 통치와 창조 세계

칼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전 우주를 굴복시킴으로써 그분의 나라를 세우신다”³³고 강조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나라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전 우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칼빈의 하나님 나라 신학이 갖는 동심원적 구조 가운데 가장 외부로 팽창하는 영역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칼빈은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 되시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하나님

28 Wolterstorff, “The Wounds of God: Calvin’s Theology of Social Injustice,” *Reformed Journal* vol 37 (1987): 14-22.

29 Wolterstorff,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Grand Rapids: Eerdmans, 1983), 10.

30 Plantinga Jr., *Engaging God’s World: A Christian Vision of Faith, Learning, and Living* (Grand Rapids: Eerdmans, 2002), xiii.

31 J. Smith, *Awaiting the King*, 박세혁 역, 『왕을 기다리며』 (서울: IVP, 2017), 258, 259-80.

32 John Bolt, “The Imitation of Christ as Illumination for the Two Kingdoms Debate,” *Calvin Theological Journal* 48/1 (2013): 6-34.

33 CO 2, col. 667 (*Institutes*, 3,20,42.). “Regnum ergo suum erigit Deus totum mundum humiliando”

나라의 현세적 통치와 우주적 주권을 설명해 주고 있다.³⁴ 칼빈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그
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호하시며 보존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발견한 즉시 그가 만물의 통치자요 보호자라는 결론을 내
리지 않으면 안 된다 ... 그가 만드신 만물은 하찮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유지하시고 양육하시며
보호하시는 통치자요 보존자이신 것이다.³⁵

칼빈은 하나님은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천명하고 있다.³⁶ 칼빈은 섭리를 설명
하면서 섭리는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늘에서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³⁷ 칼빈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조정하시며, 따라서 우연히 발생한 사건은 없다고 설명한다.³⁸ 칼빈은 이사야 주석에서 하나
님의 창조 세계가 무질서와 비참함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을 회복시킬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명백하게 말하고,³⁹ 그의 골로새서 주석에서는 그리스도의 전 우주적 구속 사역으로 회
복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한다.⁴⁰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우주가 특별히
인류를 위하여 세워졌음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도 역시 이 목적을 찾지 않
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⁴¹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삶의 한계를 정해 주신 후에 인간들에게 그
것을 보호하도록 맡기셨다는 점을 강조한다. 칼빈은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첫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라는 사명을 받았다고 기술하면서,⁴² 고린도전서 주석에서는 인간은

34 CO 2, cols. 667-668 (*Institutes*, 3.20.43.).

35 CO 2, cols. 144-145 (*Institutes*, 1.6.1.). “... nempe ut quem omnium creatorem esse didicit, statim quoque perpetuum moderatorem et conservatorem esse colligat; ... sed singulari quadam providentia unumquodque eorum quae condidit, ad minimum usque passerem, sustinendo, fovendo, curando.”

36 CO 2, cols. 146-147 (*Institutes*, 1.6.3.).

37 CO 2, cols. 147-148 (*Institutes*, 1.16.4.).

38 CO 2, cols. 147-148 (*Institutes*, 1.16.4.).

39 CO 36, cols. 241-243 (*Comm. Is.* 11:6-7).

40 CO 52, cols. 85-86 (*Comm. Col.*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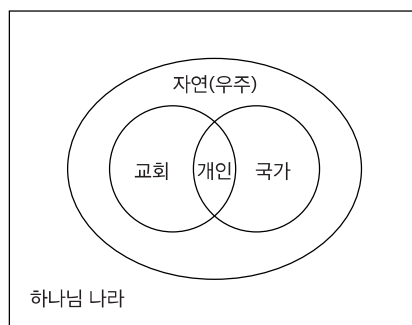
41 CO 2, cols. 148-149 (*Institutes*, 1.16.5.). “Sed quia scimus humani praecipue generis causa mundum esse conditum, in eius etiam gubernatione hie nobis spectandus est finis.”

42 CO 23, cols. 28-29 (*Comm. Gen.* 1:28).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의 한 부분을 담당하도록 선택되었다고 말한다.⁴³ 결국 칼빈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보호할 사명을 위임하셨다고 보았던 것이다.⁴⁴

4) 하나님 나라의 동심원적 구조

개혁주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 신학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이중의 통치에 근거해서 칼빈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죄용서와 구원이라는 내적인 측면에서 시작해서 외적으로 인간 사회와 창조 세계라는 “동심원적” 구조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



〈그림1〉 칼빈의 동심원적 구조

칼빈은 먼저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죄용서와 구원과 생명이라고 설명한다. 칼빈은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신정적인 국가나 세상의 제도에서 구하는 것을 배제하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지배되는 교회와 밀접하게 연결시킨다.⁴⁵

그러나 칼빈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안에서 이 세상에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은 국가를 통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사회적 삶을 살아 간다.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 신학은 더 확대해서 우주와 창조 세계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해석된다.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를 굴복시키며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시라 선언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며 섭리로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한계를 정한 후에 인간에게 생명을 보

43 CO 49, cols. 528-529 (Comm. 1. Cor. 15:27).

44 CO 2, col. 157 (Institutes, 1.17.4.).

45 안인섭, “개혁주의 교회와 정치원리,” 『목사장로기도회 자료집(2009)』 (새에덴교회, 2009.5.12.).

호할 사명을 위임하셨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 신학은 안으로는 개인적인 죄용서 및 구원과 관계되는 교회 중심의 영적인 나라와, 밖으로는 인간의 사회적 삶과 국가와의 관계속에서 진행되는 나라와의 관계라는 동심원적 구조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의 전망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IV. 아시아 교회 정책 수립을 위한 사례 연구: 개혁주의 국제화의 관점에서

이번 장에서는 아시아 교회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까지 총신대학교가 개혁신학의 국제화를 통해서 실시해 왔던 여러 사례들을 제시하고 분석할 것이다. 우리는 과거를 분석하고 그 장점과 단점들을 예리하게 평가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1. 총신대가 Refo500 Asia의 코디네이터 대학으로 선정됨 (2010년).

“Refo500”이란 종교개혁 500주년을 나타내는 ‘Reformation 500’의 약자다.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정신이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으며 네덜란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다. 당시 전 세계 180여개의 파트너 기관들이 1517년 이후로 종교개혁이 끼쳐온 영향을 역사, 신학, 종교, 정치, 사회, 문화 등 측면을 중심으로 밝혀내고 그 중요성을 드러내고자 협력했다. 파트너 기관들은 각 대학교, 신학교, 교단, 언론기관, 박물관, 출판사, 종교개혁지 답사 여행사 등 매우 다양했다.

총신대학교는 2010년 7월 28일에 Refo500에서 아시아의 대표 기관인 Coordinator로 선정되었다. 이것은 총신대학교가 종교개혁 정신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국제 조직인 Refo500의 플랫폼으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총신대학교는 세계 각국의 협력 기관들과 종교개혁 정신을 확산시키고 이 종교개혁 정신에 부합하는 적절한 프로젝트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협력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해마다 국제 학술 컨퍼런스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영향력 있는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청해서 신학적인 지평을 넓히고 전파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진행된 Refo500 Asia의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2010년 7월	총신대학교가 Refo500 Asia의 코디네이터 기관으로 선정됨
2011년 1월	아시아 칼빈학회 및 Refo500 Asia 출범식 (총신대학교)
2011년 5월	Refo500 Asia 설명회 (교육문화회관)
2011년 6월	Refo500 유럽본부 및 파트너 기관 방문
2011년 10월	Refo500 Asia 국제 학술컨퍼런스 (정기컨퍼런스)
2011년 12월	Calvin Exhibition workshop (1st)
2012년 3월	Calvin Exhibition workshop (2nd)
2012년 5월	Refo500 Asia 국제 학술 컨퍼런스 한국교회사학회(학진등재)와 공동주최 정기컨퍼런스 주제: Reformation and Asia
2012년 9월 24일	Refo500 Asia Partner 연석회의
2012년 11월 19일	Refo500 Asia (주제: 종교개혁과 한국교회의 미래) 및 Refo500 Korea 준비위원회 발족
2013년	컨퍼런스
2014년 10월	종교개혁기념 국제학술대회 및 Refo500 Workshop 주제: Establishment of the Reformed Faith in Asia
2015년 11월	국제학술대회 개혁주의신학과 영성
2016년	ATA General Assembly and Internatioal Conference “Reformation 500 in Asia”

2. 총회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세계개혁교회 국제학술대회(ICRefC) 개최 (2013년)

총회 설립 100주년을 맞아서 한국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해외 개혁교회에 감사하고, 한국교회 부흥의 토대인 개혁신학의 정체성 확신하며, 장로교회 체제를 확신하고, 세계교회가 연대하여 중국과 세계를 개혁주의 중심의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세계개혁주의대회가 총신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가 가지는 중요성 가운데 하나는 총회와 총신대가 연합하여 국제적 개혁교회와 함께 아시아와 세계의 미래를 도모했다는 점이다. 이때 총신대는 총신대학교가 지향하는 동일한 신앙과 신학사상을 가진 세계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지도자들과 교류할 것을 강조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그리스

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자고 제안했다.⁴⁶ 이때 충신대학교 출판부는 무려 1057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자료집을 출판했다.

이 세계개혁교회 대회의 자세한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13 세계개혁교회 국제학술대회(ICRefC)

* 일정 : 2013. 5. 2(목) - 5. 7(화)

* 주제 : Revival and Unity of Reformed and Presbyterian Churches

○ 해외 참가자 및 국내 발제자

1) 해외참가자: 35명 (10개국; 미국 12, 네덜란드 10, 남아공 4, 영국 2, 일본 2, 스위스 1, 독일 1, 벨기에 1, 스리랑카 1, 필리핀 1)

2) 국내발제자: 총신 67명, 타 대학/기관(19) 49명 총 116명 (중복13명 제외 총 103명)

○ 대회 취지

1) 한국교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준 해외 개혁교회에 대한 감사

2)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게 된 개혁신학에 대한 확신

3) 한국교회의 부흥의 밑바탕에 놓인 장로교회 체제에 대한 확신

4) 한국교회를 비롯한 세계 개혁교회가 연합하여 세계선교 특히, 중국선교에 힘쓰기로 함

이 대회의 의미와 성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세계개혁교회 네트워크 형성-세계개혁교회의 연합과 연대에 대한 갈급함 해결

2) 쇠퇴하는 듯 보였던 세계개혁교회계를 위해서 한국의 개혁신학이 헌신하도록 함

3) 한국교회의 신학과 신앙과 역사와 비전을 명확하게 함

4) 총신과 합동의 신학자/목회자들이 세계개혁교회의 지도자들과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

46 안인섭, "세계개혁교회 연대 모색: 칼빈의 제네바가 주는 역사적 교훈을 중심으로," 「총회실립100주년 기념 제50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자료집」(대명비발디파크, 2013.6.3.); 정일웅, "The History of Chongshin University and its educational vision to the world," 「2013 세계개혁교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서울: 충신대학교 출판부, 2013), 18-27.

3. 세계개혁주의연맹 (GRACES) (2014년 이후)

2014년에는 세계개혁주의연맹(그레이시스, GRACES)이 창설되었다. 이 그레이시스(GRACES)는 다음의 영어 이름에서 약자를 사용해서 지어진 것이다. 전체적인 이름은 “신앙고백적 교육자들과 신학교들의 국제적 개혁주의 연맹(Global Reformed Alliance of Confessional Educators and Seminaries)”이 된다. 이 이름을 제안했던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피터 릴백 총장은 그레이시스란 세계개혁신학 교육의 발전을 공고하게 하면서, 특히 중국 교회의 필요에 따른 신학적 훈련을 목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⁴⁷

그 목적은 아래와 같다.

Mission Statement : GRACES is a global Reformed association of theologians and leaders to create strategies to strengthen missions and Reformed theological education in Asia with a special focus on China.

1) 창설(1회) (2014년)

* 일정 : 2014. 5. 8(목) - 5. 11(일)

* 주제 : Global Reformed Mission for the 21st Century and China

○ 해외참가자 및 국내발제자

해외참가자 : 6명

〈표 1〉 세계개혁주의연맹(GRAES) 제1회 학술대회

대륙/국가	이름	소속	주제관련 발제내용
북미/미국	Dr. Jul Medenblik	Calvin Seminary	교회개혁의 관점
북미/미국	Dr. Peter Lillback	Westminster Seminary	언약신학의 관점
International Organization	Dr. Herman Selderhuis	Refo500회장	종교개혁의 관점
유럽/네덜란드	Dr. Roel Kuiper	Kampen/Erasmus	기독교적 정치의 관점
아시아/ATA	Dr. Bong Rin Ro	Hawaii Seminary	아시아선교의 관점
아시아/ATA	Dr. Joseph Shao	Biblical Seminary	아시아의 관점

⁴⁷ Peter Lillback, “The Foundational Necessity of Reformed Theology for Global Theological Education,” 「2015 총신대학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Global Network for the Theological Education」 (총신대학교, 2015), 18-27.

○ 대회 취지 및 성과

개혁주의 역사의 특징이 신학을 중심으로 국제적 개혁주의 연대를 형성해 온 점이라면, 현재까지는 모두 유럽과 미국과 남아공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 문화권에서 그 흐름이 발원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창설된 그레이시스는 그 흐름을 전혀 달리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아시아, 특히 중국의 개혁주의화를 위하여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는 새로운 개혁주의 국제기구의 출범
2. 세계개혁주의의 핵심 리더십과 ATA 리더십을 결속하고 연대해 나감
3. 총신과 우리 교단이 세계개혁주의 진영의 부흥과 일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반 조성
4. 한국교회를 비롯한 세계개혁교회 진영이 중국선교에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매진하기로 함

2) 2회 (2015년, 5월 11-13일)

- 국제기구(Refo500, ATA) 대표, 미국, 화란, 영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국제적인 대표들이 참석한 국제대회로서, 그레이시스가 총신이나 한국의 기구가 아니라 국제적인 기구임을 상호 확인할 수 있었다.
- 총신대학과 그레이시스가 서양과 아시아를 연결해서 중국의 개혁신학 선교를 감당하는 중요한 국제적 플랫폼임이 확고하게 인식되었다.
- 승동교회와 안동교회, 윤보선대통령생가, 조선어학회터 답사 등을 통해서 한국 개혁주의가 한국 근대화와 민주주의, 한글발전 그리고 근대의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소개하고 나눌 수 있어서 한국 개혁주의 역사를 세계에 소개할 수 있었다.
- “그레이시스 성경주석” 출판 프로젝트가 그레이시스 중앙위원회(Steering Committee)에서 공인되었다. 중앙위원회 위원 총장님들도 적극 협력, 동참하기로 했다.
- 그레이시스 중앙위원회에 인도네시아의 벤자민 인탄박사가 새로 선임되었다. 그레이시스 중앙위원회(Steering Committee)은 모두 8명이 되었다.

그레이시스의 주요 중앙위원(Steering Committee)은 다음과 같다.

국제기구: 헤르만 셀더하위스(Refo500, 화란) / 미국: 피터 릴백 총장(웨신), 메이던블리크 총장(칼빈) / 화란: 톨 카위퍼 총장(캄펜) / 아시아: 조셉 샤오 총장(ATA, 필리핀), 벤자민 인탄 총장

(인도네시아), 안인섭 교수(General Secretary, 한국)

그레이시스 중앙위원회에서는 매 2년(biannually) 국제학술대회(Conference)를 개최하며, 매년 (annual) 중앙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에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교에서 Steering Committee를 주최하기로 했으며, 2017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3) 3회 (2016년, 5월 9일, 월~11일, 수)

3회의 경우 미국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행사를 주관하므로 국제기관으로서 발돋움 하게 되었다.

1) 일 시 : 2016년 5월 9일(월)~11일(수)

2) 장 소 : 미국 웨스터민스터신학교

- 3) 안 건 :
- 국제 개혁주의 운동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함
 - 주석 시리즈 출판 프로젝트, 아브라함 카이퍼 연구 프로젝트
 - 내년 중앙위원회는 11월 6일 주간에 총신에서 개최하기로 함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1929-1930

GRACES Steering Committee Conference Schedule, 2016

	May 9	May 10	May 11
9:00-10:00			
10:00-11:00	Greetings, Opening Devotion Review of GRACES Accomplishments	- Business Meetings - * Strategy Proposal for Theological Education in Asia * Commentary of GRACES	Filming Interviews of GRACES Steering Committee members (w/ Dr. Lillback)
11:00-12:00			
12:00-1:00	Lunch	Lunch	Lunch
1:00-2:00			
2:00-3:00	*GRACES Mission Statement	*Abraham Kuyper Research Project of GRACES	
3:00-4:00	*Membership Guidelines *Theological Concensus	*Future of GRACES * Next Steering Committee Conference	
4:00-5:00	*Discussion of Reformation Celebrations		Philadelphia & Valley Forge Tour
5:00-6:00	Ents/Break	Ents/Break	
6:00-8:00	Dinner	Dinner	Dinner
8:00	Hotel / Rest	Hotel / Rest	Hotel/Rest

Hotel Information
Hilton Garden Inn
330 Pennsylvania Ave, Fort Washington, PA 19034 USA
Tel. (215) 646-4637

2000 Church Road, Glenhead, PA 19038 • www.wts.edu • 215-687-5312 • Fax: 215-687-8492

〈그림 2〉 세계개혁주의연맹(GRAES) 제3회 학술대회

4) 4회 (2017년 11월 6일, 월 ~ 11일, 토)

제4회 GRACES Steering Committee Conference 및 종교개혁 50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는 아래와 같이 개최되었다.

- (1) 일 시 : 2017년 11월 6일(월) ~ 9일(목)
- (2) 장 소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양지), 총신대학교(사당)
- (3) 주 제 : Remembering and Resignifying 500 years of Reformation
- (4) 주 관 : 총신대학교, Refo500 Korea
- (5) 예상참석인원 : 300 ~ 350여명
- (6) 초청인사

〈표 2〉 세계개혁주의연맹(GRAES) 제4회 학술대회 발제

분과	이름	나라	소속
구약	Willem A. VanGemeren	미국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명예교수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신약	David Peterson	호주	Moore Theological College / 교수
조직	John Fesco	미국	WTS (California) / 교수, 교무처장
윤리	Dr. Roel Kuiper	화란	부르더백 / 상원의원
	Benjamin Intan	인도네시아	International Reformed Evangelical Seminary / 총장
역사	Peter Lillback	미국	WTS (Philadelphia) / 총장
	Frank A. James	미국	BTS / 총장
	Henk van den Belt	화란	Groningen / 교수
	Wim Moehn	화란	PThU / 교수
	Herman Selderhuis	화란	Refo 500, Apeldoorn / 대표, 교수
실천	Gerrit Immink	화란	PThU / 명예교수
	Julius Medenblik	미국	Calvin Theological Seminary / 총장
	Daniël Louw	남아공	Stellenbosch / 교수
	Karla Apperloo- Boersma	화란	Refo500 / 담당

(7) 일 정

〈표 3〉 세계개혁주의연맹(GRAES) 제4회 학술대회 일정

주관	날짜	장소	내용
총신대학교	11. 6(월)	사당캠퍼스	개회예배, 대학·일대원 대상 세미나
	11. 7(화)	양지캠퍼스	4개 그룹, 12회 강연
	11. 8(수)	양지캠퍼스	4개 그룹, 12회 강연
	11. 9(목)	서울경기지역	기독교 유적 답사, 판문점 방문
총신대학교와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공동 학회	11. 10(금)	사당캠퍼스	초청인사 주제 강연
	11. 11(토)	사당캠퍼스	초청인사 주제 강연

4. 총신대 신대원 영어 M.Div. 출범 (2015년) / 중국어 M.Div. 출범 (2016년)

국제적 감각과 능력을 갖춘 지도자 양성하기 위하여 외국어로만 강의하는 국제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배경에는 개혁신학의 국제화라는 비전이 있었으며, 총신의 국제화 과정에 참여했던 세계의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격려와 권면도 한 몫을 했다. 결국 2015년에 글로벌 M.Div.가 출범하게 되었으며, 2016년에는 중국어 M.Div.도 시작하게 되었다.

- 1) 영어 M.Div. 출범-총신대학교 영어 M.Div.를 2015년 3월부터 시작하다.
- 2) 중국어 M.Div. 출범-총신대학교 중국어 M.Div.를 2016년 3월부터 시작하다.

5. 글로벌 도서관의 확립으로 총신대가 아시아권 신학 연구의 허브가 되다. (2016년 3월)

1)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갈보리 신학교(Calvary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소장도서 약 72,000권을 도입하다 (2014년 11월)

- 미국 필라델피아 갈보리신학교가 폐교되면서 귀중 도서 전체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도서관은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성경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학장을 중심으로 Th.M 학위까지 주던 신학교의 도서관이었다. 개혁 신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도서들이며 미국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의 총장도 적극 추천한 바 있다.
- 2015학년에 출범하는 영어 M.Div 과정 학생들과 총신 국제화를 통한 학생들의 학문연구에 크게 도움을 주고자 도입하였다. 2014년 11월 20일 본교 도서관으로 입고했다.

2) 세계적인 칼빈 연구 석학이었던 네덜란드 故 네이언하위스 교수(Prof. Dr. Willem Nijenhuis: 1916-2014)의 희귀본 및 최고급 장서 1200권을 2015년에 구입하다.

3) 따라서 총신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국서적은 59만권이며 이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국내 최고의 신학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4) 2016년 3월 양지 도서관 4층에 7만 여권의 외국어 전문 신학 서적을 소장한 Global Library를 개관했다.⁴⁸ 영어/ 중국어 M.Div 과정 학생들의 개혁주의 신학 연구에 도움을 주고 총신 국제화에

48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96213> 2023.9.3. 접속.

발맞추어 교수 및 학생들의 깊은 개혁주의적 신학 연구에 도움을 주게 되었다.

5) 이런 총신의 국제화의 결과로 총신대학은 2017년 2월 23일에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했다.

6. 아시아 신학연맹(ATA) 총회 개최(2016년) 및 총신대가 ATA 이사 학교 선정되다.

ATA에서 3년에 한 번 개최하는 총회를 2016년에 총신대학에서 개최했다. 약 34개국의 300여명이 참가한 국제대회였다. 테레사 루아 박사가 새로운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총신대학교가 ATA 이사 신학교가 되면서 ATA 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상임중앙위원에 선임되었다.

■ 2016 ATA General Assembly and International Conference

기간 : 2016년 7월 25(월) ~ 29일(금)

장소 : 총신대학교 양지캠퍼스 (사당캠퍼스 투어)

주제 : Fixing our Eyes on Jesus

- Asian Churches Pressing On (Hebrews 12:1~2)

주최 : ATA(Asia Theological Association, 아시아신학연맹)

주관 : 총신대학교

**Asia Theological Association Triennial General Assembly
July 25-29 2016, Chongshin University and Seminary, Korea
Theme: *Fixing our Eyes on Jesus: Asian Churches Pressing On* (Hebrews 12:1-2)**

Time/Date	Monday 25 July	Tuesday 26 July	Wed 27 July	Thursday 28 July	Friday 29 July
7:30-8:30		BREAKFAST			
8:30-9:15		Devotions and Prayer Time			
9:15-10:45	CAED Meeting	Session One: <i>God's Abundant Grace in Asia</i>	Business Meeting	Session Three: <i>Christianity in Asia: Missions Perspective</i>	Session Five: <i>TE: Responding to Global and Local Challenges</i>
10:45-11:15		TEA BREAK			
11:15-12:30	AGST Council Meeting	Session Two: <i>Christianity in Asia: Historical Perspective</i>	Business Meeting Academic Societies	Session Four: <i>Challenges in Asia</i>	Panel Discussion (10:45-11:30) Closing & Communion
12:30-2:00	Board Meeting	LUNCH			
2:00-3:30	Arrival and Registration	<i>Interest Groups</i>	Tour (1:30 onwards)	<i>Interest Groups</i>	DEPARTURE Tour
3:30-4:00		TEA BREAK		TEA BREAK	
4:00-5:30		<i>Interest Groups</i>		<i>Interest Groups</i>	
6:00-7:00		DINNER		DINNER	
7:00-8:30	Opening Night <i>Welcome Address</i> <i>Keynote Address</i>	Book Launching Regional Updates & Prayer Time		Installation Service ATA Night	

〈그림 3〉 2016 ATA General Assembly and International Conference

총회는 다섯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져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은 '아시아에 하나님의 풍부한 은혜'라는 주제 아래 아시아 지역에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용기를 공유하게 된다.

두 번째 세션은 '아시아의 기독교: 역사적 관점'이며 역사신학적 시각에서 아시아 기독교를 조망하며 오늘의 교회가 배워야 할 점과 답습하지 말아야 할 점을 찾아 본다.

세 번째 세션은 '아시아의 기독교: 선교적 관점'으로 아시아의 선교활동 증가와 세계 선교에서의 아시아의 역할을 나눈다.

네 번째 세션은 '아시아의 어려움들'로 현재 아시아 교회들이 직면한 이슈들과 어려움을 나누고 해결에 적합한 메시지를 연구하게 된다.

다섯 번째 세션은 '신학 교육: 글로벌/로컬 도전들에 대응하기'를 주제로 아시아 교회에 필요한 국내외적 협력과 신학교육에 있어서의 리더십 모델을 연구한다.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선택특강도 진행되었으며 주요한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 기술: 온라인 교육과 학생 데이터베이스 △커리큘럼 영향 평가: ATS 사례 △교회-집 파트너십을 통한 훈련 △신학교육에 있어서 아시아 선교단체가 서양 선교단체에게 배우지 말아야 할 것 △변화적 리더십 △관계적 제자훈련을 통한 영적인 배가 △교수와 학생들의 신앙과 교육의 일치 돕기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아시아의 공동체주의 △디아스포라 선교학: 절대적인 21세기 신학교육.

총회 넷째날 저녁에는 '아시아신학연맹의 밤' 행사가 마련됐으며 신임 사무총장 테레사 루아의 취임식이 이루어졌다. 이때 참가자들이 자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참석해서 친교를 다졌다. 수요일 오전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ATA 헌법, 회원/인증비 증가, 예산 확정, 지도자 확인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목

요일에는 아시아의 종교개혁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진행되어 종교개혁과 관련한 10여편의 논문도 발표되었다.⁴⁹

ATA 총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결과보고

(1) 참석인원 : 약 300여명 (해외 약 200명, 국내 100여명) (cf. 약 34개국)

(2) 총회내용 :

- ATA 신임총장 선출 (Dr. Theresa Lua)

- 총신대학교가 ATA 이사 신학교가 됨 (ATA 발전위원회 위원장)

- 발전위원회 창설. 위원장: 총신대 안인섭 교수 선임

(ATA의 재정적인 발전, 학술적 연구기반 확충 등의 업무)

- 총회기간 동안 아시아 교회를 향한 도전과 그것에 응전하며 전망하는 미래라는 구조로 각 세션별 발제와 토론이 진행됨. 특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종교개혁과 아시아”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병행하여 진행함.

V. 나오는 글

아시아는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으며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이 존재하는 곳이다. 아시아 교회의 정책도 기독교 복음의 보편성과 아시아라는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바람직한 방향과 그 내용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의 인구와 교세와 영향력, 그리고 신학적 수준으로 볼 때, 이제는 한국이 그동안 서양 교회와 신학교에서 받은 빛을 갚을 때가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난 13년 동안 총신대학교를 중심으로 활발한 개혁신학의 국제화 작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것은 소중한 자산으로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그 열매는 무엇인가? 왜 개혁신학과 한국 교회가 서로 연대하여 그 사역을 지속하지

49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98054>. 2023.8.19. 접속.

못했는가? 그 사역이 아시아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앞으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가? 우리는 이 지점에서 과거의 역사를 보다 섬세하고 면밀하게 평가하고 분석하여 향후 아시아 교회 정책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아시아 교회는 성경적 개혁신학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 신학은 인간의 죄로부터의 구원부터 교회를 통한 영적인 통치, 국가를 통한 사회적 삶, 그리고 창조 세계의 회복에 이르기까지 교회 사역의 광활한 범주를 제시해 주고 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이시며, 죄악의 우주성과 타락의 우주적 영향력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주적인 지평이기 때문에 아시아와 세계의 문제에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개혁신학이다. 성경적 개혁신학은 세계 신학 교육을 성취하기 위한 근본적인 필수 요소임에 틀림없다.⁵⁰

교회가 개혁신학에 서 있지 않으면 상황화 신학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크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이 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하고, 세속주의와 신비주의와 기복주의와 미신에서 아시아 교회를 방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인을 잃게 되고 목회자를 잃게 되어 결국 교회 현장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역사가 가르쳐 주는 교훈이다.

2. 아시아 교회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개혁주의적인 역동적 대처가 필요하다.

현대 교회가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환경은 날로 급변하고 있다. 교회 자체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개혁신학적인 목회자 훈련을 통한 해법이 제시되어야 한다.⁵¹ 더군다나 아시아는 언어와 인종과 문화적 차원에서 역동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각 교회 현장에서 제기되는 질문과 도전들은 너무나 다양하다. 코로나19 이후 아시아 교회는 지리적으로 방대하게 흩어져 있는 아시아 각 국가의 신학교육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기상 이변으로 나타나는 창조세계의 위기는 각 국가와 교단의 차원을 넘어서는 인류적인 대처가 절실하다. 실제로 인도네

50 Peter Lillback, "The Foundational Necessity of Reformed Theology for Global Theological Education," 「2015 총신대학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Global Network for the Theological Education」 (총신대학교, 2015), 18-27.

51 Jul Medenblik, "Global Networking for Theological Education in the 21th century from the perspective of North American Churches," 「2015 총신대학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Global Network for the Theological Education」 (총신대학교, 2015), 10-45.

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는 환경 문제에 기인해서 물에 가라앉고 있으며 수도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에서 언급되었던 아시아신학연맹(ATA)의 사역은 주로 아시아의 신학교들을 인증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적극 협력하는 사역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ATA는 그 성격상 아시아 각 국가의 주요 교단의 교회 현장과 직접적이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아시아의 교회들은 그들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주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역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이 사명을 위해서 아시아 각 국가의 교단들은 교회 지도자 양성하는 일이 긴요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시아 각 교단은 그들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인재를 엄선하여 총신대 글로벌 M.Div.로 파송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그러면 그 학생은 총신에서 개혁신학을 잘 배울 뿐만 아니라 교회 현장에서 인턴십을 잘 감당한 후에,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가 아시아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3. 아시아 교회와 개혁 신학의 긴밀한 협력과 동역이 절실하다.

초대 교회 이래로 교회가 걸어왔던 실패의 길들은 대부분 신학은 신학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각자의 길을 갔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면 신학도 변질되고 교회도 타락할 수 밖에 없다. 신학은 사변적인 유희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신학이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를 위한 신학(Theologia ecclesiae)이다. 교회는 신학을 무시하지 말고 겸손하게 신학으로부터 방향을 지도받아야 하고, 교회의 사역을 통해 그 신학은 검증되어야 한다.

실제로 칼빈주의는 신학적 전통들의 네트워크에 근간을 두고 있다. 칼빈의 신학은 한마디로 일치성과 다양성의 네트워크(a network of unity and diversity)라고 정리할 수 있다. 세계칼빈학회 회장을 20년간 역임했고 Refo500을 이끌고 있는 네덜란드의 신학자 헤르만 셀더하우스가 한국에서 발표했던 발제문은 큰 울림을 준다.

만약 내가, 칼빈이 교부들, 중세 신학자들, 그와 동시대의 신학자들의 신학적 열매를 합리적인 사고와 경건의 실천의 조화라고 특징지어지는 하나의 일관성 있는 신학 모델로 끌어들이는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을 덧붙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례하게 들릴 것이다.⁵²

52 Herman Selderhuis, "The Calvinist Connection: a Global Network before and after 2017," 「2015 총신대학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Global Network for the Theological Education」 (총신대학교, 2015), 272-289.

중요한 것은 아시아 교회와 개혁신학이 함께 갈 수 있는 실제적인 대안과 구조가 있어야 한다. 또한 그 방향에서 교회와 신학은 긴밀하게 상호 소통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역사적 개혁주의가 지금까지 지향해 왔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다.

4. 아시아 교회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생산해 내며 연대하여 플랫폼을 형성해 나갈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총신의 개혁신학과 총회는 아시아 교회를 섬기기 위한 적지 않은 귀한 노력들을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일회성의 행사에 그친 이유는 구조적인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좋은 문제의식이 있어도 한 번의 큰 행사와 이벤트가 끝나면 무대 뒤로 사라져 버린다. 즉 일관성 있게 개혁신학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아시아 교회 정책을 생산해 낼 수 있는 허브가 부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아시아교회정책연구소가 지속적인 연구를 축적해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구체적인 실천과 연대를 이룩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될 것이다.

개혁신학은 고백한다.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유지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 있다. 교회는 우리의 힘과 계획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개혁신학은 교회는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살게 되고 세워진다고 고백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연합된다. 이 교회의 연합은 참된 믿음 안에서의 연합이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몸과 영혼, 그리고 나의 삶과 죽음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고백한다.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며, 교인들을 의식 있는 시민이 되게 하며 창조세계 보존하는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개혁신학이 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줄 수 있는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Augustine, *De Civitate Dei*, 1.35.; M. Ruokanen, *Theology of Social Life in Augustine's De civitate Dei*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3), 77.

Bolt, John. "The Imitation of Christ as Illumination for the Two Kingdoms Debate." *Calvin Theological Journal* 48/1. 2013.

Calvinus, Iohannes.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s. Baum, E. Reuss, Cunitz, E. Vol. 2. Brunswick: C. A. Schwetschke, 1868.

Lillback, Peter. "The Foundational Necessity of Reformed Theology for Global Theological Education," 「2015 총신대학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Global Network for the Theological Education」, 총신대학교, 2015.

Medenblik, Jul. "Global Networking for Theological Education in the 21th century from the perspective of North American Churches," 「2015 총신대학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Global Network for the Theological Education」, 총신대학교, 2015.

O'Daly, G. *Augustine's City of God: A Reader's Guide* (Oxford: Clarendon, 1999), 53-66 그리고 265-272.

Plantinga Jr. Cornelius. *Engaging God's World: A Christian Vision of Faith, Learning, and Living*. Grand Rapids: Eerdmans, 2002.

Selderhuis, Herman "The Calvinist Connection: a Global Network before and after 2017," 「2015 총신대학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Global Network for the Theological Education」 (총신대학교, 2015), 272-289.

Shao, Joseph. "Global Networking for Theological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sia Theological Association," 「총신대학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Global Network for the Theological Education」, 총신대학교, 2015.

Smith, J. *Awaiting the King*. 박세혁 역 『왕을 기다리며』. 서울: IVP, 2017.

Van Oort, J. *Jerusalem and Babylon: A Study into Augustine's City of God and the Sources of his Doctrine of the Two Cities*. Leiden: E.J. Brill, 1991.

Wolterstorff, Nicholas. "The Wounds of God: Calvin's Theology of Social Injustice." *Reformed Journal* vol 37. 1987.

Wolterstorff, Nicholas.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Grand Rapids: Eerdmans, 1983.

김홍국. "북한 식량문제와 해결방안." 「제1회 복음-평화-통일 컨퍼런스: 통일로 향하는 교회의 길」. 기독교통일학회, 한반도평화연구원, 은누리교회 공동주최. 노보텔엠베서더 서울 강남 보르도홀, 2019.11.22.

안인섭. "개혁주의 교회와 정치원리." 「목사장로기도회 자료집(2009)」. 새에덴교회, 2009.5.12.

_____. "개혁주의 예배의 전통과 회복." 「개혁주의 예배회복을 위한 권역별 세미나: 제51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지역준비기도회 자료집」. 반야월교회, 2014.4.1./ 한성교회, 2014.4.3./ 광주미문교회, 2014.4.4.

_____. "개혁주의의 현대목회적 적용." 「총회설립 100주년 전국 목사장로대회 자료집」. 수영로교회, 2012.5.14.

_____. "세계개혁교회 연대 모색: 칼빈의 제네바가 주는 역사적 교훈을 중심으로." 「총회설립100주년 기념 제50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자료집」. 대명비발디파크, 2013.6.3.

_____. "칼빈의 하나님 나라 신학 연구." 「한국개혁신학」 68. 2020.

_____. "코로나 이후시대 목회를 위한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 신학." 「제59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자료집」. 흥천소노감 비발디파크, 2012.5.10.

_____. 『종교개혁 역사연구』. 용인: 킹덤북스, 2022.

정일웅. "The History of Chongshin University and its educational vision to the world." 「2013 세계개혁교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13.

위키백과, 아시아 항목. 2023.8.19. 접속

ATA 홈페이지. <https://www.ataasia.com/membership/> 2023.8.19. 접속.

ATESEA 홈페이지. <https://atesea.net/> 2023.9.3. 접속.

<https://www.ataasia.com/2022ataga/> 2023.9.3. 접속.

<https://www.ataasia.com/about-us/> 2023.8.19. 접속.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71115>. 2023.8.19. 접속.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96213> 2023.9.3. 접근.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98054>. 2023.8.19. 접속.



개혁신학 논평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 바라보는 아시아 교회”에 관한 논평



강대훈 Dae-Hoon Kang

총신대학교 Chongshin University

kangdaehoon@gmail.com

본 논문은 아시아 교회를 위한 신학적 토대를 하나님 나라의 신학과 개혁신학에 두면서 아시아 교회를 위한 총신대학교의 시도를 회고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본 논평에서는 저자의 논지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저자의 회고와 제안이 앞으로의 아시아 교회를 위한 정책에 어떤 통찰을 제공하는지 간단히 평가하고자 한다.

1. 논문의 전개

먼저 저자는 2장에서 아시아의 지리적 위치를 언급하고 아시아 교회의 신학을 간단히 소개

한다. 아시아는 세계인구의 60% 정도를 차지한다. 아시아신학연맹(ATA)은 아시아 32개국에서 380개의 신학교와 신학기관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합 기구로 아시아 교회를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저자는 3장에서 아시아 교회 정책의 신학적 기초를 “하나님 나라” 신학에 놓는다. 구체적으로 개혁신주의적 하나님 나라 신학을 동심원적 구조로 정의한다. “하나님의 이중의 통치에 근거해서 칼빈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죄용서와 구원이라는 내적인 측면에서 시작해서 외적으로 인간 사회와 창조 세계라는 ‘동심원적’ 구조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는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용서와 구원과 생명”을 얻는 교회 중심의 나라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는 밖으로 “사회적 삶과 국가와의 관계속에서 진행되는 나라와의 관계라는 동심원적 구조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의 전망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칼빈의 하나님 나라의 동심원 구조에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삶은 외부로 향하는 원심력 방향이다. 아시아 교회의 영적인 건강과 부흥은 “아시아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는 아시아 성도들의 “건강한 시민의식”과 연결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동심원적 구조에 비추어 교회와 국가(또는 정치)의 관계를 설정한 저자의 주장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 혼돈을 겪는 아시아 교회의 신학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저자는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창조 세계”에 대해 칼빈의 견해를 설명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우주는 동심원적 구조 가운데 가장 확장된 영역이다. 흥미롭게도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인간을 위한다(예, 칼빈의 창세기 주석과 고린도전서 주석). 하나님 나라와 피조 세계의 관계에 대한 저자의 해설은 지구온난화와 자연 파괴라는 심각한 현실을 경험하는 아시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위한 성경적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4부에서 저자는 아시아 교회 정책 수립을 위한 여섯 가지 사례를 개혁신주의 국제화의 관점에서 회고하고 평가한다. 여섯 가지 예는 저자가 실제로 참여한 총신대학교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 첫째, 총신대는 Refo500(Reformation 500) Asia의 코디네이터 대학으로 선정됐다(2010년). 둘째, 총회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로 세계개혁신교회 국제학술대회(ICRefC)를 개최했다(2013년). 이 대회는 총신대가 “동일한 신학사상을 가진 세계 개혁신교회와 장로교회와 지도자들”과의 교류 협력을 주관하고 주도하고 방대한 자료집(1057쪽)을 출간한 결과로 나타났다. 셋째, 세계개혁신주의연맹(GRACES - Global Reformed Alliance of Confessional Educators and Seminaries) 대회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네 번에 걸쳐 한국과 미국에서 열렸다. 넷째, 총신대 신대원 영어 M.Div. 과정(2015년)과 중국어 M.Div.

과정(2016년)을 시작했다. 다섯째, 글로벌 도서관의 확립으로 총신대가 아시아권 신학 연구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됐다(2016년 3월). 이런 노력의 결실로 2017년에는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했다. 여섯째, 총신대학교가 아시아 신학연맹(ATA) 총회를 개최하고(2016년) ATA 이사 학교로 선정됐다.

저자는 나오는 말에서 아시아 교회의 미래가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 신학에 기반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13년 동안 총신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개혁신학의 국제화 노력을 회고한다. 첫째,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 신학은 상황화 신학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근거다. 둘째,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 신학을 중시하는 동시에 아시아 교회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역동적인 접근과 대처가 필요하다. 아시아 교회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안으로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글로벌 M.Div. 과정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셋째, 아시아 교회와 개혁신학의 긴밀한 협력과 동역이 절실하다. 일치성과 다양성의 네트워크를 강조한 칼빈의 신학을 거울로 삼아 아시아 교회와 개혁신학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저자는 13년 동안 총신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개혁신학의 국제화 노력이 지속성의 한계를 보인 점을 회고하면서 “일관성 있게 개혁신학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아시아 교회 정책을 생산해 낼 수 있는 허브”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아시아교회정책연구소의 활동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정책 수립과 구체적인 실천과 연대를 추구하는 플랫폼의 기능을 해야 한다.

2. 논문의 기여

본 논문은 아시아 교회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여한다. 첫째, 저자는 어거스틴과 칼빈의 유산인 하나님 나라의 신학에 비추어 아시아 교회를 위한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 신학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아시아 교회는 서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취약성을 보인다. 이런 취약성은 정치 불안과 직결된다. 기독교에 매우 적대적인 종교가 서구에 비해 더 강하다(예, 말레이시아의 무슬림). 아시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 신앙과 사회적 삶의 관계에 대한 지침이 절실하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아시아 교회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말하자면,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개혁신학자들이 많고 개혁신학 전통이 강한 한국교회의 개혁신학은 아시아 교회의 현실을 위한 소중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신학적 분야에서 아시아교회정책연구소의 역할을 위한 제안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본 논문은 아시아 교회와 신학을 위한 개혁주의 생태 신학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저자는 피조 세계의 위기를 몇 차례 언급한다. 지구온난화는 이제 일반 시민들도 자연재해를 통해 체험하는 현실이다.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 이미 칼빈은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그리스도인과 피조 세계 또는 우주의 관계를 동심원 구조로 설명했다. 서구 기독교는 오래전부터 생태 신학을 각 분과에서 논의해 오고 있다(예, 2012년 영국 틴데일 학회의 Biblical Ecology). 첫 번째 논평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의 개혁주의 관점 또는 성경적 하나님 나라 신학은 급변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아시아 교회에 신학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13년 동안 총신대학교를 중심으로 전개한 개혁신학의 국제화 작업이 없어졌거나 약해진 현실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연구 기관의 존재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사례다. 일치와 다양성의 관점에서 개혁신학의 보급과 더불어 아시아 교회의 연대가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아시아교회정책연구소의 역할은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 신학이 아시아 교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교회에 독특하게 드러나는 문화적 특징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교회가 서구 기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점도 있고 약한 점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주의는 서구 기독교의 약점이면서 성경을 오해하는 문화적 요인인데, 아시아 교회에도 약점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혁주의 신학을 연구하고 대안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각 신학 분과의 학제적 연대도 필요하다.

신학적 제안과 경험적 회고를 중심으로 아시아교회정책연구소의 정체성과 역할을 위해 좋은 자료를 제공한 저자의 수고에 감사하면서 논평을 마치고자 한다.